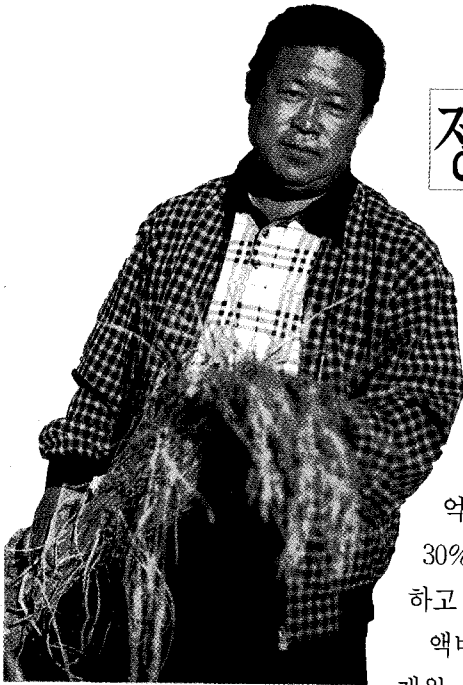


현지취재 축분뇨 비료 이용 성공사례 I

# 축산액비로 쌀 수확량을 늘리는 도개농업회사법인

- 취재 : 조 진 현 -



▲자신의 논에서 뽑아 온 벼를 직접 들여보이고 있는 도개농업회사법인 최용주 대표

**정**부는 최근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문제 해결의 가장 큰 대안으로 분뇨 액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분뇨의 액비·퇴비화 및 정화방류처리 시설에 연간 253억원(2000년, 시설비의 3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액비는 가축분뇨를 3-6개월 충분히 부숙시켜 비료화 한 것으로 퇴비화 할 경우보다 저렴한 가격에 경종농가에 보급될 수 있고, 이동과 살포가 용이해 앞으로 많은 이용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전체 작물재배 면적의

1/3에 달하는 수도작에 대한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은 우리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분뇨처리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장기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

## 축산액비로 우수한 품질의 쌀 10~15% 증산

구미시 도개면 지역에서 5만 여평에 달하는 벼농사를 짓고 있는 최용주씨(47세)는 도개농업회사법인 대표이다. 농업회사법인은 벼농사를 대행해주는 법인체로써 최근 쌀농사가 점차 대규모, 전문화되면서 농촌문화의 일부로 정착한 새로운 전문 경영방식이다.

최용주씨는 구미시 도개면

소재 1,800평에 올 5월 300평당 5.5톤씩 액비를 투입했으며, 화학비료 사용시보다 10-15%(10a(300평)당 510kg→573kg) 더 늘어난 수확량을 거둬들였다. 최용주씨는 실제 수확량이 이보다 더 늘어난 것 같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논에서 직접 뽑아온 벼를 들어 보였다.



▲도개면 소재 최용주 씨의 논

액비를 사용하면서 화학비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음은 물론, 벼가 튼튼해 도열병 등 약제의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어 경영 측면에서도 크게 이익이 되었다는 것이 최용주씨의 설명이다.

현재 1,800평 논에서 생산된 쌀은 소비자와 직접 80kg 1가마당 30만원씩 전량 계약 판매가 된 상태이다. 시중 일반 판매가는 1가마당 16만원 썩이다.

최용주씨는 내년에는 5만평 중 2만평에 액비를 시비하여 본격적으로 환경농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액비 이용에 대한 비용은 구미시 일반적인 관례상 5톤당(차량 기준) 5-7만원에 거

래되고 있으나, 구미시의 액비 지원사업과 관련돼 도개면 다곡리 소재 최수길씨 양돈장(2,000두 규모)에서 올해는 무료로 운송비만 부담했다. 그러

나 내년부터는 5-6만원/5톤에 거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구미시, 내년엔 액비 저장탱크 20기 설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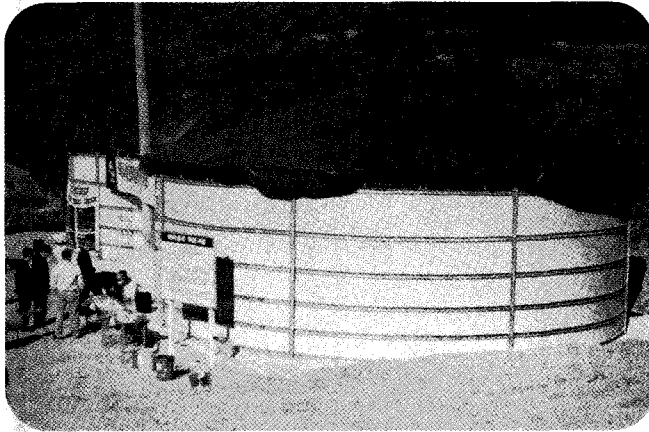
최용주씨의 수도작에 대한 액비 이용은 구미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축산농가의 분뇨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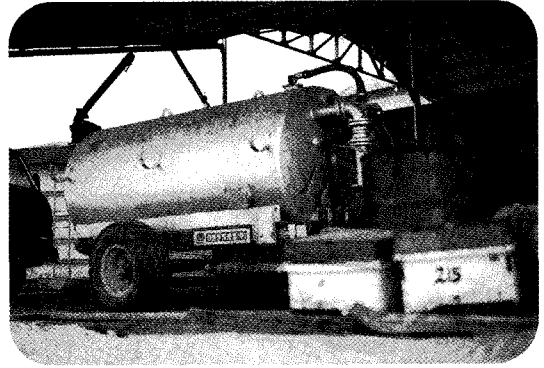
▲액비로 키운 벼(오른쪽)가 일반재배 벼(왼쪽)보다 훨씬 튼튼하고 포기가 크며 결실도 충실하다.

리 문제 해결과 경종농가의 액비이용 요청을 적절히 연결해 주어 이루어진 것이다.

농업기술센터 임영기 소장은 현재 구미지역내 18기의 저장액비화 시설이 있으며, 최근 들어 도내 수도작의 액비사용이 크게 늘어나 99년 0.4ha였던 것이 10월 현재



▲ 토개면 파곡리 최수길 씨 농장의 액비 저장 탱크



▲ 액비살포용 특수 차량



▲ 부숙된 액비는 일반 분뇨에 비해 냄새가 거의 없고 빛이 탁하다.

10ha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2001년 가축분뇨 액비 살포사업을 더욱 확대할 방침으로 있으며, 모두 20기에 달하는 액비저장탱크와 2대의 운반차량을 지원(9,000ha 분량, 5억원 책정)할 계획이다.

저장탱크(200톤 규모)의 지원은 도개면 다곡리 최수길씨 농장의 2기와 마찬가지로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미시 유통축산과 손이석씨는 “양돈농가의 분뇨 액비화는 이제까지 개발된 처리기술 중 가장 완전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좋은 방법”이라며 “액비저장 시설의 확충시 이용 벼재배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액비를 사용할 경우 특

히 “쌀의 질산태질소의 함량이 높아지고, 2배 이상 토양내 유기물 함량이 증가된다”고 말했다.

또 액비로 재배된 쌀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밥맛이 좋다고 한다.

### 이용과 법적 절차에 애로점 많아

수도작 농가의 액비 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축산농가와 연계가 잘 안되고 있는 점이다. 구미시 액비지원사업 평가회에 참가했던 수도작 농가들 또한 액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비용을 지불해서도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혔으나, 축산농가와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품질 좋은 액비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최용주 씨는 “정부의 지원으로 축산농가에 우선 액비탱크를 만들어 주어 액비의 단가를 낮추고, 수도작 농가들이 액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수도작 농가들이 축산농가를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며, “축산농가들이 분뇨처리 문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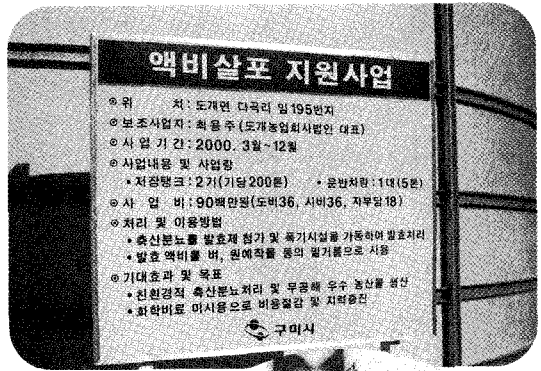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액비 이용을 홍보, 추진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러한 액비 이용 확대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비용과 법적 절차이다. 화학비료를 사용할 경우 300평당 2만원이 소요되나, 액비를 이용할 경우 5-7만원이 소요되어 수도작 농가의 부담이 크다. 즉, 환경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고부가가치로 쌀을 판매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수도작 농가의 액비 이용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또 현재 우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장 액비화 시설의 경우에는 살포할 농경지 등을 확보(자가 또는 임차농지 포함)한 농가에 대해 시설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농가만이 액비를 살포할 수 있다. 그러나 확보 농경지가 돼지 1두당 초지는 340m<sup>2</sup>, 논은 640m<sup>2</sup>, 밭은 420m<sup>2</sup> 이상으로 지정돼 있어 실제 양돈농가가 이를 보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법적 문제로 최용주 씨가 이용하고 있는 다곡리 소재 최수길 씨 양돈장의 액비 또한 구미시가 사용자인 최용주 씨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시와 도가 액비 저장탱크 설치비를 지원(40%씩)하는 등 액비자원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액비 살포 또한 사용자인 최용주 씨의 축산분뇨 재활용 신고로 살포허가를 받았다.

수요가 커 축분뇨를 전량 소모할 수 있는 수도작의 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문제점을 풀어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인 지원과 축산농가와 수도작 농가와의 연계가 이루어 진다면 완전한 환경농업과 양돈업의 분뇨처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앞서 양돈농가



▲구미시는 2001년 모두 20기의 액비저장 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임영기 소장

는 반드시 축산분뇨를 잘 발효시켜 경종농가에 공급하는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경종농가도 이제는 화학비료 대신 가축분뇨 거름을 이용하여야만 토양도 보존되고 질 좋은 농산물도 생산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양돈**

### 본지캠페인

# 모든 10% 감축 운동에 다 같이 참여합시다